

장백산천지

제 380 호

2020 년 6 월 7 일

일요일

무한에 파견된 안전 유지 공무원이 들려준 진상

[밍후이왕] 한 정치법률계 통 고위직 간부가 대법제자에게서 파룬궁 진상을 들은 후, 무한으로 파견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러 갔다. 그는 중공 간부가 무한의 한 소구역을 시찰할 때 거주민들이 “가짜야! 가짜야!” “모두 가짜야!”라고 외쳤고 그당시 그도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무한에 있는동안 그는 각급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함,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허위 날조하는 행태를 보았다.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본 그는 공산당에 대한 최후의 희망마저 잃게 됐다. 그와 상반되게 파룬궁 수련생들은 역병 중에서 사람을 구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그는 파룬궁에 대해 의심을 버리게 됐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무한 부근의 한 마을에는 무한폐렴에 감염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전면 봉쇄로 마을 사람들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의료진도 없어 감염자가 날로 늘어났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모아 큰소리로 함께 외



▲대륙의 모 촌에서는 촌장의 이끌음 하에 전촌 사람 모두 중공의 당단 대조직에서 퇴출했다. 그들은 중공의 사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촌장은 “깨끗이 퇴출하면 전염병신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치게 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이 아주 빨리 회복됐고, 더는 감염되는 사람도 없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무사했다.

이 정법간부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동향을 요해하기 위해 나도 파룬궁 사이트를 경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전에 파룬궁에서 발생한 신기한 사례를 경험한적이 없었기에 밍후이왕에서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았었는데 저는 정말 믿게 됐습니다. 일부 무한 거주민이 병독에 감염되었는데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 (真善忍好)’ 만 외우고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

평안 비결

“인심에서 일념이 나오면, 천지가 다 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하늘의 보우를 받는다. 위험에 봉착하면 곧 위험한 상태를 평온하게 한다. 이런 신기한 일은 바로 우리의 신변에서 발생했다...

무한 폐렴 기간에 한 일선 의사가 보여준 풍모

나는 가장 먼저 전염병동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했다.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 혼자 있는 가련한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질병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나는 중국의 어느 시급병원의 의사다. 2020년 설에 무한 폐렴이 갑자기 무한에서부터 폭발했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우리 병원은 현지의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몇몇 입원 병동은 빠르게 입원 환자로 꽉 찼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부족했고 전 직원이 긴급 투입되어 전염병과 싸웠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전염병은 중공사당의 독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태시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으로 신불을 믿는 선량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올해 50이다. 대가지만 우리 과의 의사들은 아직 젊은데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 나는 그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기 싫었다. 나의 아들은 대학생이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도 대법제자이다. 아들의 비행기가 무한을 경유했지만 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집에 노인들도 건강 문제가 없기에 나는 별다른 부담이 없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본다.”이다. 나는 제일 먼저 전염병동에 가겠다고 신청했다.

처음에는 의심 환자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닥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했다. 방호 물품이 부족했고 관리는 엉망이었으며 환자는 급증했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꼬박 밤을 새워 일했다. 증상을 묻고 기록하고 샘플을 채취했는데 손은 땀에 젖어 허열게 되었다. 얼굴, 귀, 콧등, 아래턱은 조여서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산소까지 부족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보호자 출입이 금지되어 혼자 있는 가련한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질병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나는 만나는 모든 환자에게 파룬따파의 진상과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天理)를 알리고 중공사당을 멀리해야만 겁난을 이겨내고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상을 알리기 위해 나는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한 곳에서 증상을 기록하는 대신 일부러 감염구역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했다. 증상을 묻고 샘플을 채취하고 식사를 배달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대법이 보호하기에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종래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인 환자들을 부축해 화장실에 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이동식 좌변기를 침대 옆에 놔주고 침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격리병동은 보호자 출입을 금지했다. 독방을 쓰기에 보편적으로 환자들의 정서는 가라앉고 두려워한다. 나는 대법의 법리로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었다. 중공이 무신론을 선전해 사람들의 도덕이 나빠진 것이 전염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짜 식품, 독이 든 분유, 독이 든 캡슐 등을 만들었고 지나치게 GDP만 추구하기에 환경이 오염되었다. 특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진선인(眞·善·忍)’을 탄압하고 가짜, 악, 투쟁을 조장했다고 알렸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고 현재 자연재해와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데 오로지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고 중공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평안

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환자들은 몇 번 말해야 받아들였다. 나는 격리병동에서 몸이 아무리 괴로워도, 방호복을 입고 벗는 것이 아무리 귀찮아도 될수록 병실에 자주 들어가서 진상을 충분히 알리고 그들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자살 등은 중공이 만든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렸다. ‘9자 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늘 외우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왜 삼퇴를 하면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다. ...

만날 수 있는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알렸다. 일을 최대한 많이 하여 상사와 동료들의 신임을 얻고 찬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고 삼퇴했다. 무한과 전국에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관련 부문은 사망자 수를 자신이 위에다 보고하고 싶은 인원수, 입원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만큼 보고했다. 실제로는 그 수를 훨씬 초과했다. 후에 나는 또 중환자실로 옮겨갔는데 거기는 더 힘들었다. 근무시 (3면에 계속)



(2면의 계속) 간에는 계속 안에 있어야 했고 보안이 더 엄격했다. 나는 비록 병균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처럼 보안을 잘 해야 하고 곳곳에서 규칙대로 움직였으며 업무량도 많았다. 외부에서 지원 나온 전문의들의 기록을 도와주었고 간호사를 도와 환자들을 돌아 눕혔으며 노인 환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도와주었다. 가는 곳마다 잘하는 것으로 대법제자의 품모를 보여주었다.

한 할머니는 마침 내가 의심 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진료받은 분이였다. 그 당시 그 할머니가 침대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부축해주었기에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몹시 기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인연이 있네요.”라고 말했다. 나는 갈 때마다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늘 ‘9 자진언’을 외우라고 알려주었다. 후에 그 할머니는 빨리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언니는 내가 갔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부는 호흡기관이 이미 마비된 상태였으며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했으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한 환자는 나의 처남의 동창이었는데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일부러 퇴근 시간에 그들이 입원한 병실에 가서 방호복을 입고 그를 만나러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당시의 형세와 결합해 중공이 정치 업적으로 인민들을 기만한 것부터 시작해 진상을 알렸다. 그들에게 ‘9 자진언’을 외우라는 것을 알리고 삼퇴시켰다. 그들은 나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격했고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체험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피하면서 다가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나를 보러 왔네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현재 그들 온가족은 모두 평안하고 무사했다.

현지 정부 관원들은 위에서 문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시급 지정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무한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허위로 보고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과실의 당지부 서기는 당부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그에게 진상을 알렸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낸 것부터 천안문 분신자살에 대해 알렸으며 마지막에 평안하게 겁난을 넘기기 위해서 삼퇴하고 평안을 보장받으라고 했다. 그는 삼퇴에 동의했다.

중공이 사악을 주입해도 선량한 생명의 본성을 가리지 못한다. 오직 당신이 진심으로 그(그녀)를 구하기만 하면 중생들은 모두 그 진정한 선을 체험하고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50 여 일 동안의 일을 마치고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

연변 박해소식

돈화시 3명 노부인 불법징역형을 선고받다

[명후이왕] 2020년 5월 13일, 돈화시 대석두진 파룬궁 수련생 주슈샤(朱秀霞 1955년 출생), 리평원(李凤云 1950년 출생), 웨이위메이(魏玉梅 1947년 출생)는 돈화시법원에 의해 주슈샤 1년 6개월, 웨이위메이 1년, 리평원 반년의 불법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접 연길시구치소에 감금됐다.

주슈샤, 리평원, 웨이위메이 3명 노부인은 우전국에서 진상 편지를 부쳤는데 대석두우전국의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직원 장원렌(张峻连), 초창쩌(曹长泽)에 의해 밀고당하여 2019년 7월 14일, 3사람이 진상 표어를 부치고 있을 때 이미 반년이상 미행, 감시하던 돈화시公安국 국보대대 대장 쑤런청(孙连成)은 경찰을 거느리고 와서 납치했다.

납치 과정에 5~6명 경찰은 주슈샤를 들어서 차에 올리려 했다. 주슈샤는 차에 오르는 것에 배합하

지 않고 “경찰이 좋은 사람을 붙잡는다”고 웨쳤는데 민중들이 모여와 경찰의 행위를 의논하고, 규탄하게 한다는 이유로 한 경찰이 주슈샤의 뒤통수를 쳐(2달간 아팠음) 혼미상태에 처하게 한후 차에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주슈샤의 오른쪽 팔에 불명한 액체를 주사해 주슈샤의 오른쪽팔에는 검은 자색이 생겼으며, 또 하나의 주사바늘 자리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주슈샤를 혼미 시킨후 그녀에게서 심장병 현상이 일어나자 또 책임질까 두려워 그녀에게 불명의 약 한알을 먹였다. 주슈샤는 깨어난후 자신의 옷이 모두 흠뻑 젖었고 머리는 마치 물에서 금방 꺼낸것과 같았음을 발견했다.

그날, 돈화시公安국 국보대대 대장 쑤런청은 경찰을 거느리고, 불법으로 주슈샤의 집에 뛰

여들어 파룬궁서적과 프린트, 컴퓨터와 복사기 등 본래 마땅히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 재산을 약탈해 갔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은 불법으로 리평원과 웨이위메이 집도 수색했고 그중 웨이위메이 집에서 현금 2만원을 강탈해 갔는데 후에 가족들이 찾아왔다.

돈화시公安국에서는 3명의 노부인에게 강제로 사진을 찍고, 손도장과 DNA를 남기게 한 다음 7월 15일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2달후 돈화시公安국에서는 주슈샤, 리평원, 웨이위메이를 불법기소했다. ◇

非法关押



“전염병이 눈이 있다”가 국보대장을 두렵게 했다



[명후이왕] 반년전 나의 아내는 진상을 알린 이유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고 현국보대장이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집을 수색했다. 3월 20일 좌우 국보대장이 전화로 나더러 불법으로 가져간 아내의 손목시계와 목걸이를 가져가라고 했다. 나는 내가 곧 가지러 갈테니 층집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더러 이미 물건을 파출소 루비에 챙겨 놓으라고 했으니 나더러 직접 그곳에 가서 가져가라고 했다. 그는 그도 전염병 때문에 격리중이니 루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당신의 방역은 어떤가요?” 나는 아주 좋다

고 대답했다. 그는 따라서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말해요?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맞지요?” 나는 “또 ‘쩐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보아하니 전염병 앞에서 이 국보대장은 대법진상과, “전염병이 눈이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에 대해 경각하고 두려웠던 것이다.

공검법사 인원들이 권력을 선하게 이용하여 대법을 선하게 대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4월에 파룬궁 수련생 1178 명이 불법적으로 감금당하다

[명후이왕] 대역병이 눈앞까지 다가올 무렵에 중공 정치법을 위원회, 610,公安, 검찰, 사법계 등 관계자들이 전력을 기울여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억울하게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정의 산산조각났는데, 그 고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20년 1월, 무한 폐렴이 폭발하자 파룬궁수련생은 전염병 재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알렸으나, 중공 경찰에게 도리어 체포, 심문, 강탈당하고 형을 선고 받았다. 베이징 순이구 경찰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상부의 지시로서, ‘4.25’와 양회에 파룬궁 (수련생)을 잡으면 5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호북성 센타오현 경찰은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생 1명을 고발하면 1000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밝혔다.

명후이왕의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중공은 파룬궁수련생 1178명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교란을 했다. 그중에 508명 (288명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음)이 납치되었고, 교란을 당한 이는 670명이다. 314명이 가택수색을 받았고, 강제로

세뇌반에 끌려간 이는 19명이며, 13명이 불법적으로 선고를 받고, 5명이 불법재판을 받았다. 또한, 15명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검찰원과 법원에 모함을 당한 이는 89명이다. 19명이 박해로 집을 떠났고, 푸순 왕화 파룬궁 수련생 81세의 위씨 노부인은 박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4월에 우페이원, 쥐우슈전, 란리화, 고옌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다

4월에 중공 공검법은 파룬궁수련생에게서 현금 25만 2250원을 강탈했다 (그중 법원에서 벌금 3만 2000원, 경찰이 가택에 침입해 22만 250원을 강탈했다.)

4월에 중공에게 박해당한 65세의 노년 파룬궁수련생은 108명이며, 가장 연장자는 89세이다.

상해 양푸우구 연길가도 콩강로 돈화소구역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생 쉬평칭은 금년에 이미 84세이다. 20여년간 파룬궁을 수련해 전신이 가볍고 병이 없어 항상 미소를 띠고 있으며 은발 머리에 불그스레한 얼굴에는 정력이 넘친다. 쉬평칭은 경상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대법은 정말 좋아요! 오늘까지 약비만으로도 국가를 위해 얼마를 절약해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들 손군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듯 자상하고 선량한 노인에게 대해서도 양푸구 공안국, 국보, 610, 연길파출소 등 관련 부문에서는 여전히 소유의 4.25 민감일만 되면 납세인의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해 윤번으로 층집 문어구에서 이 로인을 감시하게 한다.

4.25를 회억해보면 바로 21년전, 파룬궁 수련생이 국가영도와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날이다. 현재는 오히려 소유의 민감한 날로 됐는데 정말로 세상을 웃길 일이다! ◇